

안녕하세요? 여병수 형제입니다

먼저 이 귀한 시간을 허락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성경 두 구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창 1:1과 2:7 말씀입니다 ~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 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 2: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 저는 소래포구 건너편 시흥시 월곶동에 살고 있고요, 아내인 안 인 숙 자매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1957. 1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에서 믿지 않는 집안의 8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위로는 누나 세분이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 세 명과 그리고 막내 남동생이 있습니다.

- 춘천과 화천에서 어린 시절을~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라면서,
친구들에게 저의 성씨가 "여가"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지요.
그래서 항상 성씨에 대하여 불만스럽고 창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 그런데 어른이 되어 마흔 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구원을 받은 후에는 도리어 여가인 성씨가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개역성경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인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
니다.

- 그 후 전도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같은 종씨로 이름이 여호와이며,
그분의 아들이 한분 계시는데 이름이 예수이고, 나는 그분의 동생 병수라고 소개를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이름이 있느냐며 되물어보고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자랑을 했지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그 신성하고 존귀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 저는 전도를 할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창조가 되었느냐? 아니면 진화가 되었느냐? 며 물어봅니다.
당연히 불신자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진화가 되었다고 대답을 하지요 ~

- 진화론이란 ? ~

수십 수백 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콩알만 한 것이 생겨나 우주가 대폭발하여,
아메바가 생기고, 물고기와 새로, 그리고 포유동물로 진화하였고,
대표적으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진화론인데

-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면 지금까지 남아 있는 원숭이는 어떻게 그대로 있을까요?
똑똑한 원숭이는 사람이 되고, 멍청한 원숭이는 현재까지 그대로 원숭이로 남아 있는 건가요?
- 아니면 똑똑한 개가 그 중에서 원숭이가 되고 멍청한 개는 그대로 현재까지 개로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종의 변화는 진화하려면 모두가 진화가 됐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변화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대폭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있는 상태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이지 무에서 유로 폭발이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 과학이나 이론이라는 학문으로 ~
어찌 인간의 한 학문이 어떻게 신의창조를 초월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 그리고 이세상의 모든 단어나 말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이름이 있는 것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불펜, 자동차, 나무, 냄새, 바람 등 형태가 있는 것이나
형태가 없는 것이라도 모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 맞춰보세요? ~---- 그것은 바로 거짓말 입니다. 거짓말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은 말 앞에 거짓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는 것입니다.

* 불교에서는 극락이 있다고 말하고, 기독교에서는 천국이 있다고 하는데,
말이 있기 때문에 둘 다 있어야 맞겠지만 ~
앞으로 미래에 확인이 될 사항으로 극락이라는 것은 절대로 없습니다.

- 또 불교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극락과 천국이라는 것은 말이 다를 뿐 다 같으며, 비슷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99.9%가 비슷하다 해도 이것은 100% 틀린 말입니다.
현대자동차에서 아무리 똑같이 100만대의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조금씩은 틀리며,
똑같지 않고 다만 비슷할 뿐입니다

* 예를 들어 제가 쌍둥이 자매의 언니와 결혼해 살면서 처가 집 잔치에 다니러 갔다고 합시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쌍둥이 자매인 처제를
보고 아내와 똑같이 생겼네 하면서, 처제나- 아내나- 다 그게 그거지 뭐, 하면서
강제로 끌고 가 잠을 자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 또 어떤 잘 아는 사람이 ~ 내일 줄 테니 100만원을 꺾 달라고 했을때,
돈을 꺾 주었다면 내일이 오기 전까지는 맞는 말이 되겠지만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거짓말이 되고 갚을 때에는 참말이 되는 것입니다.

* 요한복음 8:44절에 "마귀는 거짓의 아버지 거짓말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진화론이란 마귀에 속아 사람이 꾸며낸 거짓 이론에 불과합니다.

* 저는 오늘 "처음에"라는 제목으로 지금으로부터 약6천년 전후의 옛날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6일간의 천지창조 이전에 북쪽에 위치한 셋째하늘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창조물인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알고,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전지전능 하신 분이지만,
창조물인 천사는 전지전능의 전이 없는 지와 능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천사 중에는 - 예수님의 출생을 미리 마리아에게 알려준 소식을 담당한 가브리엘 천사
전쟁 등 싸움을 담당하는 미가엘 천사
천사 중에 으뜸간다는 능력이 탁월한 루시퍼
그 외에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날개가 달려있는 스랍과 천사와 비슷한 존재인 그룹 등
여러 천사장과 수많은 하부 천사들이 있습니다.

*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세분은 각각 다른 인격체로 "한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우리는 이분을 삼위일체 하나님 이라고 합니다.

- 하나님과 천사와의 관계는 상하 수직의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모든 천사들을 불러 모아 전체회의를 하는 자리에서,
속된 말로 야자까지 틀수 있는 수평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는 것을 포함한 6일간의 천지창조 계획을 발표합니다.

- 그런데 천사 중에는 찬성파와 반대파로 둘로 갈라졌고
반대파는 요즘의 말로 군사 쿠데타 음모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람까지 모시는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지요,
교만해진 루시퍼가 주동이 되어서 그의 천사들이 힘을 합쳐 하나님을 죽이려는 음모와
거사 후 연합정권을 세워 하늘나라를 함께 다스려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까요? 당연히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에 때문에 이미 알고 계셨고,
쿠데타에 실패한 루시퍼를 포함한 졸개천사들은 타락하여 하늘에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은 사탄이라 하기도 하고, 마귀와 마귀들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타락한 천사라 할지라도
전지전능의 전자가 빠진 지혜와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타락한 일부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며
사람과 결합하여 거인족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 예를 들어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 치료를 하지 못할까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운전자 -- 운전을 하지 못할까요?
아닙니다. 능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개역성경에서는 타락한 졸개 마귀들을 샤머니즘의 용어인 귀신으로 번역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정착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을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없습니다.

무속신앙에서도 무당이 신들렸다. 신을 모신다 라고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졸개 마귀가 들어간
사람으로, 다시 말해서 개역성경의 귀신들린 사람으로 귀자를 빼고 신을 모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당과 점쟁이는 창세전부터 살아왔던 마귀들이
지난 일들을 알려 주는 대로 말하는 앵무새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사탄의 쿠데타 계획 실패 후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천지창조와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혼, 몸으로 이루어진, 완전한 자유의지와 성품을 지닌 사람인 아담을 만들어 에덴동산에 두고 각종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산중앙에는 한번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나무와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선악나무를 만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을 가엽게 생각하시고
뚝배기 배필로 갈비뼈를 취해 이브를 만들어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때 사람을 만드는 문제로 하늘에서 도망한 사탄이 원수가 된 사람을 가만히 놔둘까요?

- 뱀으로 변장한 사탄은 이브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라면서 이브에게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으면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고,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속여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하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최초의 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 뱀은 선악과를 먹은 이들에게 니네가 먹었는데 죽었니?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아니, 하고 대답하였을 테고,
거봐 먹어도 죽지 않지, 내말이 맞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아담과 이브 지금 어디에 살고 있나요?
죽었습니다. 따먹는 순간 그들의 영이 죽었고 ~
몸은 930년 동안 많은 자녀를 낳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죽어 지금은 없습니다.

- 그 결과로 눈이 열려 벌거벗음을 알았던 아담 부부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앞치마를 만들어 입고 죄를 지어 두려움에 동산에 숨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침에는 괜찮았는데 햇볕에 나뭇잎이 바짝 말라버렸고 밤에는 이들도 서로 부부인지라 서로 부둥켜안고 잠을 잘 때에 나뭇잎이 부스러집니다. 매일 아침 나뭇잎으로 앞을 가리는 일이 반복 되었습니다.
- 죄를 지어 동산 숲속에 숨어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하며 찾으셨고, 변명을 하는 이들에게 명령을 어긴 것을 질책 하신 후에 양의 가죽으로 옷을 해 입혀 주셨지만, 죄로 인한 부끄러움만 가려주는 부분적인 해결입니다.
- 그 후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추방시키고, 생명나무를 하늘나라로 옮겨 놓으셨는데 왜 옮겨 놓으셨을까요?
두 가지 열매를 모두 먹었을 때 발생하는 말이 안 되는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서 입니다.
- * 어떤 사람들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따먹게 했느냐?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사탄의 속임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백전백패 100% 뱀에게 속을 줄을 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뱀이 어떻게 접근하게 될 것까지 미리 아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 어려운 연습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답을 알 수 없었지만 아래에 있는 힌트를 읽어 보면 정답을 쉽게 맞힐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따먹지 말라고 당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힌트, 선악과 입니다.
- * 그러면 여기서 죄가 등장 하는데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즉 교만해져서 하나님 말 안 듣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 롬 5:12 "한사람의 죄로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했으며,
= 6:23 "죄의 삯은 사망"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위 말씀으로 보아 죄는 전가 되는 것이며 자녀에게 상속되고 유전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추방된 아담과 이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 이브는 출산의 고통을, 아담은 일을 해야만 하는 수고가 대가였습니다.

동물은 출산의 고통이 있을까요?

동물은 개나 소, 돼지 등은 아무리 많은 새끼를 낳아도 아프지 않습니다,
다만 새끼를 낳을 때 힘을 줄 뿐이지요.

사람은 아기를 낳을 때 심한 고통으로 심지어 남편을 원망하면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간밤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주인 모르는 사이에 낳아 새끼들에게 젖을 먹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닭은 알을 낳을 때 언제 낳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소리 없이 알을 낳고난 후에야 "꼬꼬덕" 하면서 알을 낳았다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려 주지요.

* 죄의 결과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혔다고 했는데~

죄를 가리기 위해서 죄 없는 양이 대신 희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신 죽은 것입니다. 이것을 대신속죄, 대속 이라고 합니다.

죄를 가리기 위하여 옷감인 가죽을 얻기 위해 동물이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 양을 죽일 때는 그 희생양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킨 후 죽이게 되는데 이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직접 칼로 찌르게 하고,
피 흘리는 것을 보게 하고, 조각을 떼서 불로 태우게 합니다. 이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것이 제사이며,

제물로는 소, 양, 염소, 비둘기등 흠이 없는 정결한 동물로 지내야 합니다.

- 부정한 짐승인 돼지로는 지낼 수 없으며, 제물이 아무리 크고, 비싸고, 귀한 제물이라도 한 제물은 한사람의 죄만 없애주는 일대일 (1:1) 죄 사함이 원칙입니다.
제사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죄가 발생하는데 동물의 희생으로 지내는 제사는 영원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모든 사람의 죄를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용서해 주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방법은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아무리 씻고 살펴보아도 죄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분이신 아들을 제물로 세상에 보내 주겠다고

구약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이 바로, 죄가 없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 사람으로 제사를 지낸,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고전 소설 심청전에서 16살 먹은 아리따운 처녀 심청이를 인당수에 제물로 드렸지요.
과연 심청이는 죄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효녀 심청이가 아닌 갓난아이라도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 마태 1:21 절에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마리의 희생양인 제물로 모든 인간을 위해,
아니 내 죄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밤낮으로 3일 동안 땅에 묻혔다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마음으로 믿어
나의 구원자로 받아드리는 것, 이것을 저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다시 말해 믿는다는 것은
비록 2천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을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더라도
나를 위해 대신 돌아 가셨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오바마가 누구입니까?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아니지요,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TV에서 보았고,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고, 많은 사람들로 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바마를 직접 만나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확인한 것 입니다.

- 영국에 가 본적이 있습니까?
영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인천공항에 가서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 영국에 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없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인천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영국이 있어도 가지 못합니다.

- 천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천국을 가려면 반드시 예수라는 믿음의 비행기를 타고 가야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은 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비행기표입니다.
종이로 만든 비행기표는 잃어버릴 수 있으나,
단 한번 마음에 새긴 비행기표는 절대로 잃어버리거나 무를 수가 없습니다.

- 여기서 마음에 새긴 비행기표, 즉 구원이란?
다시 태어나는 것, 거듭 나는 것, 두 번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 요 3:5에 " 물에서 나고 성령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고 말씀하시며
3:6에서는 " 육에서 난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 고전 15:45절에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죽지 않거나 한번만 죽는다. 고 말입니다

-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은
어머니 배속 양수에서 즉 물에서 한번,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 들일 때 성령으로 한번,
이렇게 두 번 태어나는 것이고,

두 번 죽는다는 것은 몸이 한번 죽은 후, 혼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한 불 호수에 던져지는 것을
말하며,
죽지 않는 경우는, 우리 생전에 휴거가 일어 날 경우 입니다.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 의심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이때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은 대표적인 구약시대의 사람은 믿음으로 희생을 드린 아벨,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기쁨을 드린 에녹, 하나님 말씀대로 120년 동안 방주 만든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이 있으며,
현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교회, 바로 우리 성도들 입니다.

* 10여 년 전 26명의 사람을 죽인 연쇄살인범 유영철이라는 사형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유영철이라 할지라도,
지난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의 몸은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서 죽을지라도
그의 혼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것입니다.

* 20여 년 전 대전의 김밥장사 할머니가 평생에 모은 재산 51억원을 충남대학교에 기부하고
돌아 가셨습니다.
만약에 그 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 할머니의 혼은 지옥으로 갔을 것입니
다.
유영철과 할머니, 무슨 차이가 있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죄,
아담이 범죄한 후 나에게 유전된 원죄를 예수님께서서 모두 제거하고
돌아가셨다는 대신속죄 사실을 인정 했는지의 차이 뿐입니다.

회개란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주 쉽고도 어려운 결정이지요.
그토록 훌륭하신 김밥할머니---
예수님의 대속사실 인정이 ~ 그렇게도 어렵고 하기 싫었을까요? 그것이 죄입니다.

* 20여 년 전 돌아가신 성철스님이 계십니다.
생전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셨다는데 ----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이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읽은 요3:6절의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에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용한 듯 합니다.

* 첫 사람 아담은 처음에 영. 혼. 몸으로 만들어 졌습니다.
- 요즘 우리는 모두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 혼. 몸 삼위일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핸드폰을 만든 주목적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통신입니다.

여기서 핸드폰의 영이란 통신사에 필수적으로 가입 하여야만 통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핸드폰의 혼 은 핸드폰을 구입 후 충전을 하고 전원을 키면, 와이파이, 네비게이션, DMB, 게임 및 카메라 기능 등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며,
핸드폰의 몸 은 폰 몸체를 말하는데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많은 부품으로 구성된 소모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 사람의 영이란 하나님을 의식 하는 기관이고,
혼은 나를 의식하는 기관이며, 몸은 영과 혼으로부터 지배를 받아 움직이는 육체로,
사람은 아담이 범죄시에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며, 혼과 몸으로만 살아 가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 살아나는 것이 영이며,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이 죽어 있는 사람으로
핸드폰을 구입 했으나 통신사에 가입을 하지 않은 통신기능이 없는 먹통 휴대폰과 마찬가지로 입니다.

* 고전 13:1 "내가 사람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징과 울리는 팽과리가 되고"

히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 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 제가 지금까지 말한 옛날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거나 거짓이 있었다면 한번 울린 징과 팽과리 소리로 여겨 잊어버리시고,
사실로 믿어진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은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대신속죄 사실이 "아! 나를 위한 제사였었구나."라고 받아 들여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아침에 누워 있는 아내에게 손가락으로 살짝, 아주 살짝 건드려 보았습니다.

즉시로 반응이 왔습니다. 깨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깨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면서

* 저는
우리교회가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켜주신 읽기 쉽고 정확하고 완전한 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보급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을 둔 "천국소망 공동체"라고 굳게 믿으며,
자랑스러운 그 이름 "사랑침례교회" 바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